

Shin

SUMI MASAYUKI

2012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신은주무용단 - '국제 레지던스 작가전' - SUMI MASAYUKI

2012. 7. 16 (월) 오후8시

장소 | 부산춤공간 Shin

주관 | 신은주무용단 • 부산춤공간 Shin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DCM 대창메텔주식회사

 산남대학교

 환경바이오

신은주무용단은 2012년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인 레지던스 사업으로 새로운 창작 작업의 모색과 발전을 도모하는 시도를 합니다.

2012년 5월 부터 일본의 무용가 SUMI MASAYUKI가 부산춤공간 Shin에 입주하여 동서대학교 연기와 학생들을대상으로 한 '움직임 신체 워크샵'을 진행하여 왔고 신은주무용단과 함께 '춤에 의한 즉흥신체훈련'을 통한 창작 작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레지던스 작업을 진행하면서 각자 다른 문화 다른 공간에서의 작은 춤들은 새로운 발견이며 깨달음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춤이란 진정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고 마음의 기관을 따라 모든 사물을 볼 수 있게 하여 열린세상으로인도하는 힘을 가졌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춤의 발견으로 아름다워진 단원들과 수미 마사유키 선생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12. 7. 16. 예술감독 신은주

BDT Busan Dance Theater

부산춤공간 Shin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846-18번지 부산학원빌딩 10층 T.626-3037

이 공연은 2012 공연장 상주 육성지원사업의 기금으로 공연됩니다.

•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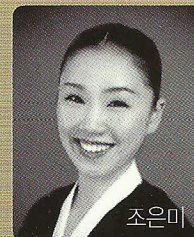
»움직임 신체워크샵/ 동서대학교 연기와

김해진, 이진한, 장한새, 김민수, 김민주, 강민정, 임윤서, 임서영

»마음과 신체의 대화/ 신은주무용단



류현숙



조은미



김근영



김나영



장정희

• 공연스텝

»총 감독-신은주 »총 진행-Jay Kim »조명-김경환

»음향-임수진 »무대감독-윤가현 »무대진행-표예리



지금 저는 정말로 행복함으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기분을 문장으로 쓰겠습니다.
이번, 신은주무용단의 초대에 의해 2개월간의 부산 레지던스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최자 신은주선생님과 무용단 인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지원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레지던스 워크숍이 세계에 열린 댄스워크숍으로, 이후 새롭게 참가하는 많은 아티스트와 함께
풍부한 예술 프로그램으로서 발전해 나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연회장에 모여주신 많은 여러분에게는 일본인 현대무용가 角正之(Sumi Masayuki)와 신은주무용단
단원 여러분과 댄스 공동 제작이라고 하는 작업 속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댄스 예술 창조의 시도를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모여주신 여러분과 많은 관계자 분들에게 이 댄스레지던스 기획의 더 나은 발전과 위대한
전개를 바라면서, 저의 감사의 말을 대신하려고 생각합니다.

2012年 7月吉日

댄스캠프프로젝터 대표 角 正之

01 동서대학교 연기와 학생을 위한 신체 워크숍

배우로서의 신체는 무용을 하는 신체와 어떻게 결정적으로 다를까요?

[워크숍 항목]

우선, 연극학과 학생이 학습하는 '몸'이라는 것은 "음향적인 신체"와 "침묵하는 신체"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신체 운동으로서의' 아래의 항목을 실행합니다.

- (1) 호흡에 길들다/ 호흡운동으로 시작하는 몸
 - (2) 움직임에 길들다/ 바 운동, 발란스& 언발란스 움직임, 죽은 몸
 - (3) 상대(타인)에 길들다/ 손을 맞잡고, 합기&반발, 옮기다& 옮겨지다
 - (4) 소리에 길들다/ 방울소리가 울리는 동안의 움직임, 스킵보이스, 보컬리스, 대화풍 이상, 기초적인 신체감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워크숍의 중심이 됩니다. 그 일에는 서로 관계하는 신체감각으로서 세 개의 연습을 행합니다.
 - (1) [언어에 의한 음향 신체]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취해가면서 동물 움직임을 행한다.
 - (2) [무음에 의한 음향신체]에서는 한 호흡으로 움직이는 몸의 시간을 안다.
 - (3) [무게에 의한 침묵신체]에서는 프레스 감각으로부터 서로의 움직임의 교감을 행한다.
- 이상의 신체감각 작업을 통해서 마지막에 행하는 것.

[워크숍 공연]

움직임의 에피소드 움직임을 '3인에 의한 움직임의 이야기'를 작성한다. 즉흥적인 움직임에 의한 대화를 행하면서, 움직임 속에 숨겨진 원초적 신체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02 2012 부산 레지던스 작품 '마음과 신체의 대화' 신은주무용단

A. 움직임의 즉흥대화[침묵&빛과 그림자의 인터페이스]

이 작품은 서로 간섭하는 움직임의 즉흥대화이며, 네개의 요소가 인용됩니다.
"닿아있다, 다르다, 똑같다, 죽은몸" 이상의 4가지가 움직임의 관계를 만듭니다.

4개의 빛의 공간에 의한 우발적인 춤의 기회 조작으로 발생합니다.

움직임은 같은 시간과 장소에 의한 상호작용적인 주제와 변주의 교환작업이 됩니다.

원래 이 작업은 끝이 없이 계속되는 작업이지만 이번에는 15분으로 종료합니다.

B. 움직임의 시나리오에 의한 즉흥대화[talk to her/talk to you/talk to me]

이것은 [신체이미지화나 캐릭터 채용]에 의한 움직임의 공동작업입니다.

음악은 H.Greckl 작곡 (Lerchenmusik No2, No3)을 인용합니다.

음악의 줄거리구성이 움직임의 시나리오에 변모해가며, 거기에 움직임의 에피소드가 탄생합니다.

음악의 틀에 구속되며 세부적인 움직임은 자유입니다.

움직임의 상호작용적인 관계에 있어서 처음으로 움직임의 "개성화"가 주장됩니다.

